

| 모듬별 활동 결과 보고서

※ 파란색 글씨는 참고 사항임.

모듬 이름	모듬 : 6조
활동 제목	생활속에 헛갈리는 맞춤법
역할 분담 결과	<div> <div>서가인 :자료조사</div> <div>노영인 : 카드제작</div> <div>송자문 :자료조사</div> <div>남진우 : 카드제작</div> <div>양국호 :자료조사</div> <div>윤예나 : 카드제작</div> <div>김수이 :자료조사</div> <div>김하음 : 카드제작</div> </div>
모듬별 활동 결과	<div> <div>□ 잘된 점:</div> <div> <p>서가인 :한글에 대해 관심이 있었고 좋은 기회 입니다, 송자문 :많은 흥미를 가지고 한글의 매력을 느꼈다 양국호 :한글의 문법을 많이 배웠고 많이 배웠습니다. 김수이 :좋은 기회로 한글의 쓰임에 더 많이 알게 됐다. 노영인 : 적극적 표현 열심히 하고 좋은 아이 디어,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참석부분이 많았습니다 남진우 : 좋은 아이 디어를 냈고,성실하고 열정적이고, 한글 문법에 대하여 많이 알게 되었다 윤예나 : 열심히 참여했고 결과물제출이 성실하고 열정적다이며 결과물이 좋았습니다. 김하음 : 열심히 하고 좋은 아이 디어,성실하고 열정적</p> </div> </div> <div> <div>□ 개선할 점:</div> <div> <p>서가인 :한글에 더 많은 이해도를 갖게 되었습니다 송자문 :한글과 봉사활동에 더 많은 시간이 있었으면 더 좋았습니다 양국호 :한글의 문법을 많이 배웠고 많이 배웠습니다. 김수이 :회의 참석부분이 빈약했고 한글 탐색시간이 좀 적었습니다 노영인 : 좋은 봉사활동을 보냈습니다 남진우 : 좋은 봉사활동을 보냈습니다 윤예나 : 열심히 참여했고 결과물제출이 성실하고 열정적다이며 결과물이 좋았습니다. 김하음 : 열심히 하고 좋은 아이 디어,성실하고 열정적</p> </div> </div>
결과	

즐거로운
맞춤법 생활

호감도 하락하는 맞춤법 실수 5가지



Made with MANGOBOARD

제 0교시 - 10월 9일은 한글날

세종 대왕

한글날'은 훈민정음 곧 오늘날의 한글을 창제해서
세상에 펴낸 것을 기념하고, 우리 글자 한글의
우수성을 기리기 위한 국경일입니다.

Made with MANGOBOARD

즐거로운
맞춤법 생활

호감도 하락하는 맞춤법 실수 5가지



Made with MANGOBOARD

제 1교시 - 옛갈리는 맞춤법

웬

왜 인지의 틀림말

웬

어째서 / 까닭으로

웬'은 왜인지가 줄어든 말로 뚜렷한 이유도 없이라는 뜻
'웬'은 무슨 까닭으로, 어째서 라는 뜻을 가진 관형사

예시

웬지 영희가 보고싶은걸? - X
웬지 영희가 보고싶은걸? - O

웬지, 어찌
무엇을 위하여

아! 그렇지 무슨 말?

Made with MANGOBOARD

제 2교시 - 옛갈리는 맞춤법

되

'되'는 말 그대로 되

돼

'돼'는 되어의 준말

'되와 돼'가 들어갈 자리에 '하와 해'를 넣어보면 쉽다!
'하'가 어울리면 '되', '해'가 어울리면 '돼'

예시

나 지금 철수 만나러 가야돼 (해)
오늘 철수 댁시에 만나야 되(하)지?

Made with MANGOBOARD

제 2교시 - 옛갈리는 맞춤법

어의
없다

어이
없다

'어이었다'는 '임이'너무 동백이어서'가 막히는 듯하다라는 의미를
가지고 있습니다. 정확한 표현은 '어이없다'가
옳은 표현이라고 합니다

예시

- 나는 어이가 없어 내색의 얼굴을
배려하고만 있었다.
- 그는 그 현금수표용 소문을
듣고 어이없어했다.

Made with MANGOBOARD

제 1교시 - 옛갈리는 맞춤법

웬

왜 인지의 틀림말

웬

어째서 / 까닭으로

웬'은 왜인지가 줄어든 말로 뚜렷한 이유도 없이라는 뜻
'웬'은 무슨 까닭으로, 어째서 라는 뜻을 가진 관형사

예시

웬지 영희가 보고싶은걸? - X
웬지 영희가 보고싶은걸? - O

웬지, 어찌
무엇을 위하여

아! 그렇지 무슨 말?

Made with MANGOBOARD

제 2교시 - 옛갈리는 맞춤법

되

'되'는 말 그대로 되

돼

'돼'는 되어의 준말

'되와 돼'가 들어갈 자리에 '하와 해'를 넣어보면 쉽다!
'하'가 어울리면 '되', '해'가 어울리면 '돼'

예시

나 지금 철수 만나러 가야돼 (해)
오늘 철수 댁시에 만나야 되(하)지?

웬지, 어찌
무엇을 위하여

아! 그렇지 무슨 말?

Made with MANGOBOARD

제 2교시 - 옛갈리는 맞춤법

되

'되'는 말 그대로 되

돼

'돼'는 되어의 준말

'되와 돼'가 들어갈 자리에 '하와 해'를 넣어보면 쉽다!
'하'가 어울리면 '되', '해'가 어울리면 '돼'

예시

나 지금 철수 만나러 가야돼 (해)
오늘 철수 댁시에 만나야 되(하)지?

웬지, 어찌
무엇을 위하여

아! 그렇지 무슨 말?

Made with MANGOBOARD

제 3교시 - 옛갈리는 맞춤법

~이

~하다가 붙는말

~히

그렇지 않은 말

다음에 나오는 예시의 경우는 원래는 ~하다가 붙는 말이지만
~이 로 써야하는 경우!
깨끗이,너부죽이,뜨뜻이,지긋이,클칙이,반뜻이,느긋이,배정어

예시

설거지 깨끗이 해
옷을 단정히 입었구나

반칙이 내어선
우아스도 이해안

올라만
안아면 잘 들어야하

Made with MANGOBOARD

제 3교시 - 옛갈리는 맞춤법

데

경험한 것에 대하여

대

듣는 것을 전달할 때

내가 겪은 일을 설명해 줄 때는 '대'라는 종형의 '대'를
남이 겪은 일을 전달할 때는 '다'고 해의 줄임말 '대'를

예시

민식이 영희를 좋아한데
민식이 그 드라마 재미없대

반칙이 내어선
우아스도 이해안

올라만
안아면 잘 들어야하

Made with MANGOBOARD

맞춤법 수업 끝!

이제는 틀리지 말고
정확하게 쓰자!

Made with MANGOBOARD